



4면

4대 공권·종묘 전통한지 후원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협력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음 10월 4일) 제2660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한 푼이라도 더” 송 지사, 강행군

국회의장·각당 예결위원장 등 예산 핵심인사 방문 국립공공의료대학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등 요청 시군 합동 국회 상주하며 정치권 공조 실시간 대응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고, 지난 1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심사가 시작되고 있는 현 시점이 국가 예산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강행군에 돌입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17일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위성곤 예결소위 위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을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이 필요한 주요 중점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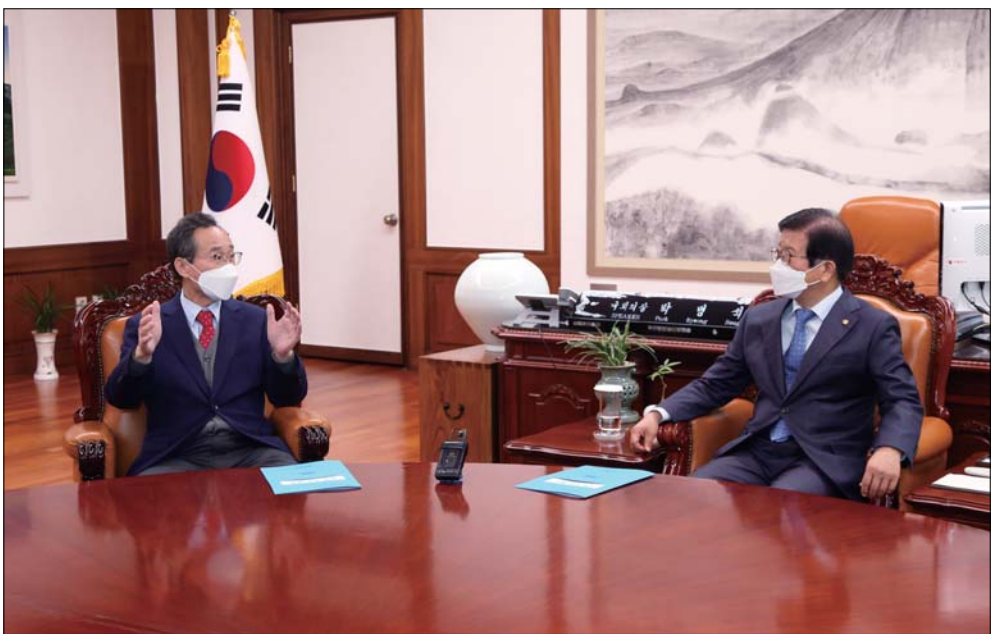
회예산심의관 면담을 통해 전북도 중점 확보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0월 21일부터 도와 시군 합동으로 국회에 상주하며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하고 있으며, 윤준병 예결소위원을 비롯한 지역·연고국회의원과 공조를 통해 한 푼이라도 더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송하진 도지사 등 전 간부공무원이 총력 무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종 예산이 국회 의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3년 연속 7조원 국가예산확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 도로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는 등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증액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17일 국회에서 박병석 의장을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이 필요한 주요 중점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 협력”

조직위 중앙 종목단체 방문홍보에 사무처장들 일성

“적극 돕겠습니다. 우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

최근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온 중앙 종목단체 사무처장들의 일성이다.

중앙 종목단체 방문을 통해 대회 추진방향에 대한 공유, 중앙과 지방과의 협력체계 구축, 종목별 운영체계 확립 등에 대한 논의했다.

아울러 당사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2021년도 종무별 전국대회 규모 전북도 추진 각종 대회 추진시 전북 대회 적극 홍보 대회 추진에 따른 외국 선수단 통관절차 협조 등을 이끌어 낸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중앙 종목단체 방문을 주관한 최형원 조직위 경기지원본부장은 “대회가 내일이라는 마음 가짐으로 경기 운영에 따른 분야별 협업체계를 구체화하고, 또 실행에 대한 수시 점검과 확인을 통해 빈틈없는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확진자, 군산의료원서 응시

전북교육청, 수능 대비 방역·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방역 계획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수능 시행 1주일 전인 11월 28일부터 미스터치고 등을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 집단 발병을 예방하고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으로 전북에는 전북·군산·마한·정읍·남원교육문화회관과 정읍학생복지회관 등 6개 시험장이 운영된다. 병원시험장은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중인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으로 전북에는 군산의료원에 시험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12월 2일에 실시된다. 다만 학생의 교실 입실은 금지되며, 수험표 교부는 강당 등의 별도 장소에서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수험표를 받으면 된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해당 수험생의 직계가족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친인척 등이 증빙서류 지참 후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수능은 확진·격리 수험생에게도 최대한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병원·별도시험장을 운영한다. 별도시험장은 격리통지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으로 전북에는 전북·군산·마한·정읍·남원교육문화회관과 정읍학생복지회관 등 6개 시험장이 운영된다. 병원시험장은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중인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으로 전북에는 군산의료원에 시험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수능 당일 수험생은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다. 입실 전 체온 측정과 하고, 시험실에 들어갈 때 출입구에 준비된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다.

시험실에는 비말 차단막을 위한 가림막이 책상 전면에 설치돼 있으며, 본인의 응시정도가 기록된 책상용 스티커가 가림막 받침대 오른쪽에 부착돼 있으니 앉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이 수능일 전에 코로나19 확진·격리 통보를 받았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즉시 관할 보건소와 도교육청 수능담당부서(학교교육과 289-3722)에 신고하면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수능 당일에 발열 등 유증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시험장마다 별도시험실을 운영한다. 별도시험실은 시험장학교 규모에 따라 2~3개 시험실이 준비돼 있으며, 한 시험실당 2m 거리를 유지해 수험생 책상을 설치하게 된다.

수능 당일 시험 중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점심시간에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미리 준비한 개인도시락과 음료로 식사한다. 마스크는 일반시험실의 경우 본인에게 맞는 일반마스크를 착용하면 되며, 방사선검사나 방사선 치료는 금지된다. 별도시험실이거나 별도시험장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도교육청에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여분의 마스크를 1개씩 제공할 계획이다.

만약 수능 당일에 37.5도 이상의 열이 나거나 지속적인 기침 증상이 있다면 일단 응시 예정인 시험장으로 가서 시험장 방역담당관의 도움을 받아 별도시험실에 입실 후,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면 된다. 도내 모든 시험장에는 응급환자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소방안전관리관이 1명씩 배치될 예정이다.

수험표 교부 및 시험 안내를 위한 수험생 예비소집은 예정대로

수능 당일 시험 중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점심시간에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미리 준비한 개인도시락과 음료로 식사한다. 마스크는 일반시험실의 경우 본인에게 맞는 일반마스크를 착용하면 되며, 방사선검사나 방사선 치료는 금지된다. 별도시험실이거나 별도시험장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도교육청에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여분의 마스크를 1개씩 제공할 계획이다.

시험이 종료되면, 모든 수험생은 밀집해 퇴실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수능 이후에도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수능 이후에 대하별 전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관리반을 운영, 긴급상황에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전주매일 캠페인

일반시민이라면?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